

2018년
5월 셋째주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낳다
전라도천년 1000

VOL. 184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May

주간 전남농업



전남농업기술원, 발작물 기계화 현장연사회 개최

주간 날씨정보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노동력 줄일 수 있는 벼 담수직파, 이렇게 하세요

정책동향

전남도, 가축 분뇨 액비 5월 말까지 살포해야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남도들노래 들으며 모심기 체험 하세요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1~15도, 최고기온 : 21~25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출하 및 가격전망
- ▶ 무 출하 및 가격전망
- ▶ 당근 생산 및 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9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3

- ▶ 인삼산업, 수출로 성장 활로 찾아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전남농업기술원, 토종 재래돼지 고기맛 알린다
- ▶ 전남농업기술원, 밭작물 기계화 현장연사회 개최
- ▶ 노동력 줄일 수 있는 벼 담수직파, 이렇게 하세요
- ▶ 저비용 물 관리 기술로 논에서도 밭작물이 쑥쑥!
- ▶ 혈액순환 돕는 약용작물 단삼 새 품종 고산 개발
- ▶ 새싹 삼(蔘), 먹기도 하고 주름에도 바르세요!
- ▶ 원예작물 근권파리류, 초기 방제로 피해 줄여야

6. 정책 동향 22

- ▶ 전남도, 가축 분뇨 액비 5월 말까지 살포해야
-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주요 전환 품목의 수급 관리 강화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4

- ▶ 순천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 ▶ 광양시, 상자모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일손경감 일석이조
- ▶ 보성군,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보성물 1주년 특별할인
- ▶ 무안군, 황토랑쌀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 선정
- ▶ 장성군, 농사도 인턴하며 배운다
- ▶ 함평군, 대추농가에 병해충 교미 교란제 지원



8. 해외 농업정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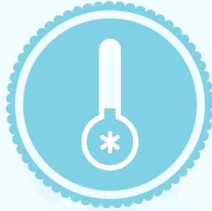
- ▶ 일본, 농수성 지리적표시(GI) 상품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 ▶ 미국, 한국산 수입 고추류 새로운 규정 제안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5. 14.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3

- ▶ 남도들노래 들으며 모심기 체험하세요
- ▶ 도심으로 온 밀밭, 우리밀을 만지다
-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8.0°C
(평년대비 2.7°C 높음)
- 최고기온 : 23.9°C
(평년대비 1.1°C 높음)
- 최저기온 : 12.9°C
(평년대비 3.4°C 높음)
- 강 수 량 : 3.4mm



목포시

- 평균기온 : 17.1°C
(평년대비 2.3°C 높음)
- 최고기온 : 22.1°C
(평년대비 0.4°C 높음)
- 최저기온 : 13.2°C
(평년대비 2.3°C 높음)
- 강 수 량 : 3.0mm

여수시

- 평균기온 : 17.4°C
(평년대비 2.1°C 높음)
- 최고기온 : 21.2°C
(평년대비 1.2°C 높음)
- 최저기온 : 14.2°C
(평년대비 2.3°C 높음)
- 강 수 량 : 4.8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엽근채소류 고랭지작형 재배(의향)면적 평년보다 증가



봄 전체 생산량 (평년 대비 증감률)



7.2%

배추



-0.6%

무



11.4%

당근



5.7%

양배추

금년 면적
작년 대비
평년 대비

5,038 ha
-347 ↓
-44 ↓

배추

2,833 ha
-121 ↓
363 ↑

무

금년 면적
작년 대비
평년 대비

181 ha
16 ↑
57 ↑

당근

1,644 ha
219 ↑
50 ↑

양배추

고랭지 재배(의향) 면적



5월 배추 가격 전망



5월 무 가격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5~6월 출하량 평년보다 증가

- 5월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은 낮은 시세와 저장입고 지연으로 늦춰진 물량이 출하되어 작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5월 시설 및 노지봄배추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작년보다 각각 19, 23%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5월 전체 출하량은 시설 및 봄배추 출하량이 적어 작년보다 19%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가격 평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도매가격은 작년(3,660원)보다 높으나, 평년(6,290원)보다는 낮은 5,000원/10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무 출하 및 가격전망

출하전망 : 5~6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 5월 출하량은 월동무 저장 및 시설봄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출하량도 월동무 저장 및 봄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가격 작년보다 높을 전망

- 5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13,420원)과 평년(12,940원)보다 높은 19,000원/20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 5월 중순 이후는 시설봄무가 본격 출하되면서 상순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당근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전망 : 봄당근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 시설봄당근 작황은 겨울철 한파피해로 5월 상순 출하분(수막 당근)이 다소 부진한 편이나, 중순 이후 출하분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2%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11% 증가한 3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가격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

- 5월 출하량은 겨울당근 저장 출하량이 증가하나, 시설 봄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5월 도매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26,000원/20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순별 가격은 시설봄당근이 본격 출하되는 중·하순이 상순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 평년보다 증가 전망

- 생산량은 평년보다 6% 증가하나, 생산량이 크게 많았던 작년보다는 7% 감소한 7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5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출하량은 겨울저장 및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10% 많으나, 작년보다는 3% 적을 전망이다.
- 5월 도매가격은 평년보다 낮으나, 작년보다는 높은 3,500원/8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5. 14.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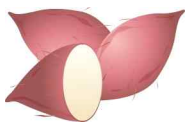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44,520	44,52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720	31,800	39,933	↑	11.5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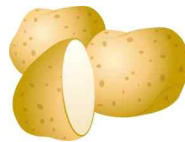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35kg	178,200	178,200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5,800	172,000	155,000	↑	15.0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43,600	42,400	↑	5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600	27,400	27,640	↑	57.7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59,400	104,400	↑	1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7,900	50,300	39,413	↑	50.7

채소류

배추(봄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5,860	-	↑	5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875	7,769	↓	24.6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8kg	6,100	5,900	↑	7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725	3,460	5,137	↑	18.7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0개	32,667	32,333	↑	4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500	22,333	27,852	↑	17.3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개	16,400	18,800	↑	6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50	10,100	11,343	↑	44.6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60kg	1,150,000	1,150,000	↑ 10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00	554,000	718,667	↑ 60.0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41,200	37,0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800	50,550	46,590	↓ 11.6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145,000	15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0,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17,800	20,600	↓ 2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	22,750	17,360	↑ 2.5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0kg	37,400	32,60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000	35,050	33,907	↑ 10.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kg	1,480	1,260	↓ 1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80	1,660	1,837	↓ 19.4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5kg	23,800	30,200	↑ 4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00	16,750	18,683	↑ 27.4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kg	-	17,6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00	-	13,923	-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23,800	28,200	↑ 21.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700	19,600	21,120	↑ 12.7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5kg	23,200	24,600	↑ 1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350	20,100	17,193	↑ 34.9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39,000	39,000	↑	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850	38,300	44,167	↓	11.7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5kg	36,200	36,400	↓	1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400	44,200	45,320	↓	20.1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kg	34,800	34,4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800	-	32,450	↑	7.2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0g	8,014	7,900	↑	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48	7,616	6,766	↑	18.4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kg	4,937	4,795	↓	16.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87	5,909	5,565	↓	11.3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30kg	498,000	498,0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000	519,000	531,000	↓	6.2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kg	14,000	13,400	↑	2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50	11,300	12,033	↑	16.3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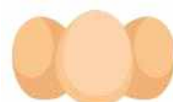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2kg	7,600	7,200	↑	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00	7,100	8,067	↓	5.8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00g	1,850	1,754	↓	1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33	2,224	2,025	↓	8.6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30개	4,366	4,361	↓	4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49	7,953	6,090	↓	28.3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4/30)	1주일전 (4/23)	전년대비	
1L	2,516	2,516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16	2,530	2,531	↓	0.6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5. 14. 기준 / 단위 : 천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30	5,734	5,293	↓ 1.8	↑ 6.4
	거세	6,667	6,805	6,390	↓ 2.0	↑ 4.3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62	3,252	2,962	↑ 0.3	↑ 10.1
	수	4,045	3,948	3,727	↑ 2.5	↑ 8.5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518	3,507	2,66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32.2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76	259	19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6	↑ 42.3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2	409	41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	↓ 3.4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545	1,503	2,47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8	↓ 37.5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03	931	2,10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0	↓ 57.2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87	2,866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3.2	↓ 6.7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인삼산업, 수출로 성장 활로 찾아

- 2017년 인삼류 수출, 전년대비 18.7% 증가한 1억 5,839만불 달성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감소세를 보여 왔던 인삼 생산액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서 위기감마저 감돌던 인삼 산업에 희망의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 인삼 산업의 약진은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7년 인삼류 수출은 전년(1억 3,349달러)에 비해 18.7% 증가한 1억 5,839달러를 기록하여, 현장에서는 인삼이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서의 과거 명성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국가별로 보면,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이 51.8% 증가한 77.8백만달러, 싼남방정책 대상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아세안 시장은 19.1% 신장된 19.4백만달러, 미국, 캐나다도 각각 18.5% (21백만달러), 27.3%(3.2백만달러) 증가하였다.
- 농식품부에서는 인삼 수출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의 인삼 신제품 수요증가와 함께 중국내 뿌리삼 재고 소진 등이 수요 증가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 건강기능식품 선호·음용 편이성 추구 등 현지 시장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스틱형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한류드라마 및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도 수출 확대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는 그간 정체되어 있던 인삼 산업이 수출 증가세, 소비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인삼자조금('15 도입)을 통해 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업계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안전 생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제품개발 연구 등을 통해 중화권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베트남, 태국, UAE 등으로 더욱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1월 PLS 제도 시행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므로, 농가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별 재배이력, 포장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경작신고 의무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5월 11일 인삼산업 전반에 대한 『2017년 인삼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인삼 통계자료집은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년 지자체, 인삼조합, 유관기관이 보유한 행정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인삼 재배 면적, 생산량, 수급 및 가격 동향,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등 인삼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농업기술원, 토종 재래돼지 고기맛 알린다

- 홍보 전문가, 파워블로거 등 초청 평가회 개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산업화 시대 속에 사라져간 토종 재래돼지 고기맛 알리기에 나선다.
- 재래돼지는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시기를 거치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품종이다. 현재 축산연구소 등 일부 기관에서 혈통을 보존하고 있으나 사육농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앞서 언급했듯 재래돼지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질병에 강하고, 육질 면에서 일반 돼지고기와 확연한 차이가 난다. 재래돼지는 일반 돼지고기의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비해 육질이 쫄깃쫄깃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일반 돼지고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다.
- 축산연구소에서는 재래돼지 고기 맛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부에서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하여 5월 하순 재래돼지 고기 맛 평가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밭작물 기계화 현장연사회 개최

- 양파 정식기 등 5분야 37점의 농기계 전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 고령화시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밭작물 기계화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15일 농업기술원에서 밭작물 기계화 현장연사회를 개최한다.
- 밭은 논에 비해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고 경사지가 많아 기계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작물이 다양하고 재배방법이 지역별로 다르다. 2016년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벼 재배는 기계화율이 97.9%이나 밭작물은 58.3%로 낮다.
- 현재 콩, 옥수수 등 식량자급률 향상과 논 이용 타작물 재배 확대 등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밭작물 기계 개발과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농촌진흥청에서도 주요 밭작물인 콩, 양파, 마늘, 감자 등 6작목에 대한 전과정 일관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이번 연사회에서는 주요 밭작물 모종 정식기, 잡곡류 파종기, 감자·고구마 정식기 등 총 9점의 농업기계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고, 밭작물 흙갈이~수확에 이용되는 5분야 37점의 농작업 기계가 전시된다.
- 특히 지역 우수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지역에 적합한 기술 보급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도내 밭작물 기계화율을 빠르게 높일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노동력 줄일 수 있는 벼 담수직파, 이렇게 하세요

- 초기 입모 확보와 잡초성 벼 방제가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벼 재배 시 노동력 부담을 덜 수 있는 담수직파(湛水直播)의 올바른 재배 기술과 잡초 및 잡초성 벼의 방제 방법을 소개했다.
- 벼 담수직파는 논에 물을 가둔 상태에서 싹이 튼 법씨를 뿌려 재배하는 방법으로, 모를 따로 키우고 옮겨 심는 것보다 노동력은 12.4%, 생산비는 6% 줄일 수 있다.
- 먼저, 담수직파에 성공하려면 온도가 낮고 산소가 적어도 입모가 잘 되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 적응성이 좋은 품종으로는 황금노들, 수안, 수광이 있다. 종자는 파종 전 탈망기로 까락이나 이삭가지를 제거한다.
- 30~32°C의 물에 24~48시간 종자를 소독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싹이 1~2mm 자랄 때까지 1~2일 싹틔우기를 한다.
- 논은 12~15cm로 간 후 물을 댈다. 안정적인 입모를 확보하고 잡초를 줄이려면 물 댄 후에는 써레질(흙덩이를 부수고 논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과 논 고르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파종량은 10a당 3~4kg이 적당하며, 지역마다 알맞은 파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물은 남부지방은 파종 후 5~7일, 중부지방은 7~9일쯤 뺀다.
- 직파는 옮겨심기(이앙 재배)에 비해 잡초나 잡초성 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직파와 옮겨심기를 번갈아 해주고, 파종 전 잡초성 벼가 싹 튼 후에 흙갈이 등을 해 준다.
- 파종 12~15일이 지나면 담수직파용으로 등록된 제초제로 방제한다. 잡초가 많을 때는 파종하고 25~30일 쯤 후에 논바닥이 드러나도록 물을 빼고 경엽(莖葉) 처리 제초제를 뿌린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저비용 물 관리 기술로 논에서도 발작물이 쑥쑥!

- 기존 기술 대비 설치비 53%↓, 무설치 대비 수량 최대 23%↑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논의 본래 기능은 해치지 않으면서 재배하는 발작물의 생산성은 높이는 저비용 물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 논은 벼 재배 시 물을 가둘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성한 농경지다. 이 때문에 발작물을 재배할 경우, 침수나 과습 피해를 입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땅을 파지 않고 배수관(암거관 :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지하에 고랑을 파고 묻는 관)을 묻는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과 자동 물 빠짐과 물대기 기능을 갖춘 논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 트랙터 부착형 무굴착 암거배수는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과 동시에 부직포로 감싼 땅 속 배수관과 충전재인 왕겨를 묻는 기술이다.
- 이 기술은 흙을 깊게 뒤섞지 않아 땅속 양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땅의 수평을 깨뜨리지 않아 언제라도 다시 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콩을 재배했을 때 수량은 10a당 365kg으로 무설치 재배 296kg에 비해 최대 23% 많았다.
- 땅 속 배수관을 설치하는 비용은 헥타르(ha)당 약 650만 원으로, 땅을 파고 관을 묻는 굴착식 암거배수(1,370만 원)에 비해 53% 이상 줄일 수 있다. 지하 배수량은 하루에 42mm로 기존 방식 29mm에 비해 42% 정도 많다.
- 논 지하수위 제어시스템은 물 빠기와 물대기를 관리하는 수위제어기를 설치해 지하수위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혈액순환 돕는 약용작물 단삼 새 품종 고산 개발

- 수량 많고 병해충에 강해... 수입 대체 효과 확대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약용작물 단삼의 새 품종 『고산』을 개발했다.
- 고산 품종은 말린 뿌리의 수량이 10a당 367kg로, 대비종인 『다산』 품종에 비해 약 9% 많으며 뿌리썩음병과 충해에 강하다.
- 단삼의 주요 약효 성분인 살비아놀산 B(Salvianolic acid B)와 탄쉬논 IIA(Tanshinone IIA) 함량이 대비종보다 높다. 특히, 살비아놀산 B는 2배 정도 많다.
- 새 품종은 종자 증식을 거쳐 재배적지인 주산 지역의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께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경북과 강원 산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말린 뿌리를 심장을 다스리는 중요한 생약재로 사용해왔다.
- 단삼의 뿌리 추출물은 혈전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며,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산후복통 등 부인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단삼 추출물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은 막고, 골 형성을 촉진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최근 연구보고도 있다.
- 단삼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다가 2010년부터 국내 재배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재배 면적이 4ha(생산량 41톤)로 서서히 늘고 있으나, 한약재용 79톤(254천 달러), 식품용 5톤(16천 달러)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
- 단삼 뿌리는 차(티백), 주스, 식혜, 영양밥, 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이용되며 항노화 효능도 있어 화장품 소재로도 가치가 높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새싹 삼(蔘), 먹기도 하고 주름에도 바르세요!

- 잎·줄기 발효추출물의 눈가 주름 개선 효과 밝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새싹 삼 잎과 줄기를 발효시킨 추출물이 눈가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밝혔다.
- 이번 실험은 30대와 40대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주름 지수 감소 정도를 평가했다.
- 새싹 삼 잎과 줄기의 발효추출물을 넣은 대상 제품(크림)을 눈가에 바른 후 의료기기를 이용해 주름을 측정했다.
- 그 결과,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2주 동안 사용한 후에는 5.26%, 4주 후에는 9.62% 주름이 감소했다.
- 임상실험 대상자 모두 피부에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부 전문가는 시험 제품이 무자극 물질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 설문 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대체로 시험 제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매끄러움 항목에서는 80%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끈적거림 정도를 나타내는 점도와 촉촉함, 윤기 증가에서는 70% 이상 만족도를 보였다.
- 농촌진흥청은 앞선 연구에서 새싹 삼의 발효를 통해 기능성이 뛰어난 사포닌 3종을 대량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 발효 새싹 삼에는 특이 사포닌이 인삼 잎보다 많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리해 구조를 밝혔다.
- 또한, 자외선 같은 자극에 의해 생기는 검은색 또는 갈색의 멜라닌 생성도 막아 미백 효과가 뛰어남을 입증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 세포 실험을 통해 발효 새싹 삼의 잎과 줄기가 주름을 개선하고 콜라겐 생성을 높이는 효과도 밝혀냈다.
- 농촌진흥청은 임상 실험 결과를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 중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원예작물 근권파리류, 초기 방제로 피해 줄여야

- 육묘기 또는 정식 초기에 천적 처리하면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봄철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원예작물 육묘나 재배 중 근권파리 피해가 우려된다며 예방과 방제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 근권파리류는 토양 해충으로 애벌레가 채소,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의 뿌리, 구근을 갉아먹고 토양 중에 사는 토양 병해를 먹거나 몸체에 묻혀 작물체로 이동해 피해를 준다.
- 근권파리류는 18~25℃ 사이의 그늘지고 습한 곳에 사는 소형 파리류이며, 한 마리만 발생해도 급격히 개체 수가 늘어난다.
- 봄과 가을에 번식과 활동이 왕성해지며 작은뿌리파리가 대표적이다.
- 근권파리류는 크기도 작지만 알, 애벌레, 번데기가 토양 중에 서식하기 때문에 감자 조각과 끈끈이트랩으로 발생을 확인해야 한다.
- 또, 연중 발생하므로 육묘 중 혹은 정식 초기에 알, 애벌레, 번데기를 모두 잡아먹는 포식성응애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 포식성 응애류로는 국내 토착 종류인 총채가시응애(아큐레이퍼응애, 가는불파리줄응애, *Hypoaspis aculeifer*)와 수입 종류인 스킴투스 응애(마일즈응애, *Stratiolaelaps scimitus*)가 있다.
- 포식성 천적 처리 시엔 육묘기 또는 정식 초기에 330㎡ 마다 1만 마리를 7~14일 간격으로 3회 이상 골고루 방사한다.
- 천적 처리 후 근권파리류가 갑자기 늘었을 때 저독성 등록 약제를 7일 간격으로 1~2회 뿌려 발생 수를 줄이면 천적 효과가 다시 나타난다.
- 발생 수가 많은 경우는 등록 약제 처리를 먼저 하고, 이후에 포식성 천적을 처리하면 효과적이지만 초기에 관리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도 더 크다.
- 육묘기에 처리한 포식성 천적은 작물체의 정식과 함께 본밭으로 옮겨 예방 및 방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도, 가축 분뇨 액비 5월 말까지 살포해야

- 장마철 이전 농경지 살포로 환경오염 방지 당부 -

- 전라남도는 양돈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료작물 생산과 연계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액비를 전량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여름철 집중강우 시 가축 분뇨 퇴비·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흘러들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가축 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할 경우 화학비료 소요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가축 분뇨만으로도 인산과 칼리는 9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어 자원으로써 가치가 크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장마철 이전 5월 말까지 시군 및 자원화 조직체, 조사료 경영체에서는 사전 살포 농지 등을 확보해 살포하도록 조치했다. 모내기 등 농사철에 집중 살포해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장마철 대비 충분한 액비 저장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업체에서는 반드시 완전 부숙된 액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농지 밖 하천이나 농수로 등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사가 45도 이상 되는 곳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 되지 않은 곳에는 살포하지 않아야 한다.
- 전라남도는 올해 국비 34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29억 원을 확보,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및 액비 살포비, 악취저감 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주요 전환 품목의 수급 관리 강화

- 생산조정추진단 및 특별지원기간(5~10월) 운영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34.6천ha, 5.8 기준 가집계) 분석 결과, 두류 9.2천 ha, 조사료 14.8천 ha, 일반작물 10.6천 ha로 집계됨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 타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중앙 및 시군단위로 『쌀 생산조정 추진단』등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특별지원기간(5~10월말)을 설정하여 타작물 재배, 주요 전환 품목의 수급상황 등 지속 점검·관리하고, 올해 중점 재배품목인 콩, 조사료 등 수급안정 지원 강화한다.
- (콩)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전량 정부수매, 지자체별 신청실적에 따라 약정수매 물량 추가 배정(5월 중순)
- (조사료) 농협 책임판매 등 유통물량 관리, 품질 기준 마련, 유통비 추가 지원 등 수급안정대책 강화, 신청농가별 유형 분석(자가소비·판매 등) 후 추가대책 마련
- (일반작물)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급식·직거래 등 추가적인 판로 확보, 소비처 발굴 등 지원
- (재배기술) 작목별 논 이용 재배매뉴얼 제작 배부 및 지역별 재배기술 지도·컨설팅 실시를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 (농기계) 특별 지원 기간 중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별로 타작물 재배 단지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보강(40개소 예정, 개소당 2억 원 수준)
-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재배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순천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 시비 3억 원 확보... 보험료 추가 지원 -

- 순천시는 태풍·우박·동해 등의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 올해는 가입대상 품목이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확대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할인된다.
- 품목별 가입 시기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11월 30일까지, 벼 6월 29일까지(이앙불능피해보장은 5월 8일까지), 고추 5월 25일까지이며, 고구마·옥수수·봄감자는 5~6월, 콩·참다래 6~7월, 배·매실·복숭아·마늘·양파·인삼 등 10~11월에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 “올해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가입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20% 중 약 3%를 추가 지원해 준다. 많은 농가들이 가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순천시

▶ 광양시, 상자모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일손경감 일석이조

- 3억 천만 원 투입, 6월 중순까지 농가 신청 전량 250,195상자 공급 -

- 광양시는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적기에 모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벼 육묘장에서 생산된 건실한 상자모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시는 올해도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가에서 신청한 새일미, 영호진미 등 2개 품종 250,195상자 전량을 공급한다.
- 그동안 시는 모 이앙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상자모 공급을 희망시기가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됨에 따라 육묘업자와 벼재배농가 간 원만한 이앙시기를 조정했다.
- 우선, 벼 조기재배 단지를 우선으로 지난 5월 4일 계획량 대비 6% 정도인 15,000상자 공급했다.
- 이어, 오는 5월 13일부터 상자모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해 6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 시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인 1,331ha의 80%인 1,038ha에서 벼 상자모를 통해 모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보성군,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보성물 1주년 특별할인

- 오는 27일까지 전 품목 10%할인 및 무료배송, 적립금 지급 -

- 보성군은 농특산물 전문 쇼핑몰인 『보성물』 오픈 1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8일간 전 품목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보성물에서는 보성차로 만든 햇녹차, 고품질 녹차미인보성쌀, 건강에 좋은 게르마늄 흑토마토와 미니토마토, 신토불이 잡곡, 가공식품 등 400여개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 1,7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보성물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만을 엄선·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 특별할인 행사로는 △농특산물 전 품목 10% 할인과 무료배송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사은품 제공 △신규회원 5천원 적립금 지급 △행사기간 내 상품구매 전 고객 더블 적립금 등을 지급한다.
- 한편, 군은 보성물의 활성화를 위해 상세페이지 고급화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지하철 2호선과 KTX용산역, 광주 시내버스 광고는 물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무안군, 황토랑쌀 전남 10대 고품질브랜드쌀 선정

- 11년 연속 수상으로 전남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로 우뚝 -

- 무안군 대표 브랜드 쌀 『황토랑쌀』이 11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 예비평가를 거쳐 엄선된 13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에서 2개월간 종합 평가한 결과 황토랑 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11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쌀로 자리매김했다.
- 무안군 농협양곡(주)무안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황토랑쌀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저온저장시설 보관 후 최첨단 도정 시설에서 가공하고 있어 최고의 미질로 평가받고 있다.
- 무안군은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쌀 산업 분야에서는 전문도정 시설과 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철저한 계약 재배에 의한 생산 및 농가 교육, 홍보 등에 집중했다.
- 또한, 쌀 품질의 안전성과 최고의 밥맛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양곡(주)무안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 GAP시설을 완비하고 유통에 있어서는 당일 도정해 출고하는 1일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 출처 : 무안군



▶ 장성군, 농사도 인턴하며 배운다

- 연수생이 직접 고른 농장서 1:1 실습... 농가와 멘토·멘티로 연결해 조언 -

- 장성군이 귀농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상대로 귀농 실습 교육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 장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신규 농업인이나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업에 새로 도전하는 귀농인이 수개월 동안 자신이 선택한 농장에서 실습하며 영농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장성군은 귀농인과 선도 농가를 1:1로 연결해 기술적 지원은 물론 농촌 정착을 위한 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올해 실습 교육에는 24명의 연수생이 참여해 지난달부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지정한 실습 농가에서 영농 기술을 배우고 있다. 작목 특성에 따라 3~7개월간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가 영농 적용실습, 각종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자율학습조직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 현재 실습 교육 농장은 총 16곳이다. 귀농인들은 이들 농장에서 토마토, 블루베리, 표고버섯, 복분자 등 선호도가 높은 11개 작목의 재배법을 배울 수 있다. 장성군은 연수생이 원할 경우 다른 품목도 추가로 선정해 교육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 장성군은 매월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연수생에게 최대 월 8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공제에도 가입했다.
- 장성군은 농장실습교육뿐 아니라 농업기초반 교육,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교육,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32)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장성군

함평군, 대추농가에 병해충 교미 교란제 지원

-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8ha의 대추 농가를 대상으로 수확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복숭아 순나방과 심식나방의 교미번식을 방해하는 이중 복합 교미 교란제 80봉(100개/봉)을 (자부담 30%) 지원했다.
- 특히 복숭아 순나방은 연 4~5회 산란을 하는 과수 주요 해충으로, 유충 때부터 방제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집중 방제기간으로 설정했다.
- 일명 페로몬 트랩(pheromone trap)이라고 불리는 교미 교란제는 나방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 분비하는 페로몬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것으로, 수컷 나방이 암컷을 찾는 데 혼선을 일으켜 교미를 방해하고 번식 자체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킨다.
- 게다가 작물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미생물에 쉽게 분해돼 친환경 자재로 평가 받고 있다.
- 한편, 함평군은 1시군 1특화작목 사업의 일환으로 대추나무를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100농가에 대추나무 19.0ha가 식재되어 있다.

* 출처 : 함평군



일본, 농수성 지리적표시(GI) 상품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의 지리적 표시(GI) 상품의 매력을 국내외의 실수요자 등에게 알리기 위해 『지리적 표시상품 정보발신사이트』를 공개했다.
- 홈페이지 개설목적은 GI 제도의 보급 및 활용촉진 및 상품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외국과의 GI상호보호의 실천과 해외에서의 판로개척을 위해 일본의 GI등록상품의 정보를 일본어 및 영어 등 다수의 외국어로 해외의 정부관계자, 국내외의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제작했다고 한다.
- 지리적표시상품 정보발신 사이트 : <https://gi-act.maff.go.jp/>
- 시사점으로 한국에서도 2002년 보성녹차가 최초로 등록되었으며 현재까지 100여개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데,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리적표시 상품의 상세한 정보제공 및 수출상품으로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에 상세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사이트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 특히, 지리적 표시 상품의 경우 해외 수출시 지역적 차별화가 가능하며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가치도 부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지리적표시(GI : GEOGRAPHICAL Indication)는 농림수산물 및 식품 등의 명칭으로서 그 명칭에서 해당상품의 산지가 특정 가능하고 상품의 품질 등에서 확보된 특성이 해당산지와 연계되며 특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로서 등록이 인정된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와 병행해서 등록표장(GI마크)을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리적표시 로고

미국, 한국산 수입 고추류 새로운 규정 제안

- 농무부(USDA) 동식물 검역소(APHIS)는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고추류에 대한 규정 수정을 제안하였다. 본 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온실 내 해충망 구멍 크기와 해충 방제를 위한 색상점착 트랩(끈끈이 덫)에 관한 것이다.
- 본래 해당 규정은 병충해가 미국에서 번식하는 막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특히 § 319.56-42 조항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고추류 통제에 대한 것으로 해당 식물은 반드시 해충이 없는 온실에서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온실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승인을 받아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내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구멍과 틈은 해충 관리를 위해 0.6mm의 방충망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
- 재배기간 동안 해당 시설은 매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추수 후 수확물은 엄격한 처리 절차 및 포장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해당 제품이 미국 내 유통이 되어도 안전하도록 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 규정은 시설 내 통풍 제한을 유발하여, 온습도 관리가 어렵고, 곰팡이 활동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품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망의 규격을 0.6mm에서 1.6mm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미 동식물 검역소(APHIS)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보고서(CIED)를 준비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APHIS의 허가를 받은 1.6mm 방충망이 있는 시설에서 재배된 다른 과채류 (예, 이스라엘 가지, 한국 토마토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6mm 규격의 방충망은 끈끈이 덫과 같은 추가적인 해충 통제 방법과 함께 사용될 경우 해충 유입을 통제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위 결과에 근거하여, 미 동식물 검역소는 해당 규정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수정안에는 각 온실에서 노란색과 파란색의 끈끈이 덫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온실은 총채벌레(thrip)의 활동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활동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면, 해당 온실의 수확물은 위험이 완화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출이 중지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5. 14. 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곡물 선물가격 기술적 매도와 전매도로 인해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5%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와 미국 남부 평야의 건기로 인한 수확 우려가 완화되면서 3세션 연속 하락했다. 미 농무부 수급 보고서는 미국산 18/19년 밀 수확량 전망치를 무역량 기준치인 18억 2,100만으로 전망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1.4%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와 밀과 콩의 약세로 인해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옥수수 선물에 대한 이슈 부족과 밀과 콩의 약세로 인한 스피로버 효과로 펀드의 전매도에 영향을 받았다. 미 농무부 수급 보고서는 18/19년 미국산 옥수수 기말 재고를 16억 8,000만 부셀로 전망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8%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와 전매도, 주요 콩 수요국인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영향을 받아 2% 가까이 하락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남도들노래 들으며 모심기 체험하세요

- 전남도농업박물관, 19일 모내기 체험행사... 18일까지 선착순 모집 -

-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농업테마공원 벼 한 살이 체험장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동반가족 등 참가자를 대상으로 『남도들노래 시연 및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 남도들노래 시연 및 모내기 체험은 농업박물관이 매년 실시하는 행사다.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못자리에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손으로 모를 찌내 못줄을 띄워가면서 전통 방식으로 모를 심는 체험행사다.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제51호)로 지정된 남도들노래 예능 보유자(이영자, 박동매 등) 보존회원 30여 명을 초청해 참가자들과 함께 모 찌는 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을 부르면서 모내기 체험을 실시, 참가자들의 흥을 돋는다.
- 행사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등록 후, 모내기 체험행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남도들노래 시연을 관람한다. 못자리에서 자란 어린모를 손으로 직접 찌서 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게에 저 논으로 옮긴 다음 못줄을 띄워가며 모를 한 줄 한 줄 심는다.
- 모내기가 끝난 뒤 못밥과 농주 등 옛 농부들이 협동노동 후 들녁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나눠먹던 먹을거리 체험도 한다.
- 행사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전화나 박물관 누리집(www.jam.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초중고등학생 및 동반가족 200여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개인당 5천 원이며, 참가자들은 물장화, 양말, 모자, 수건 등을 준비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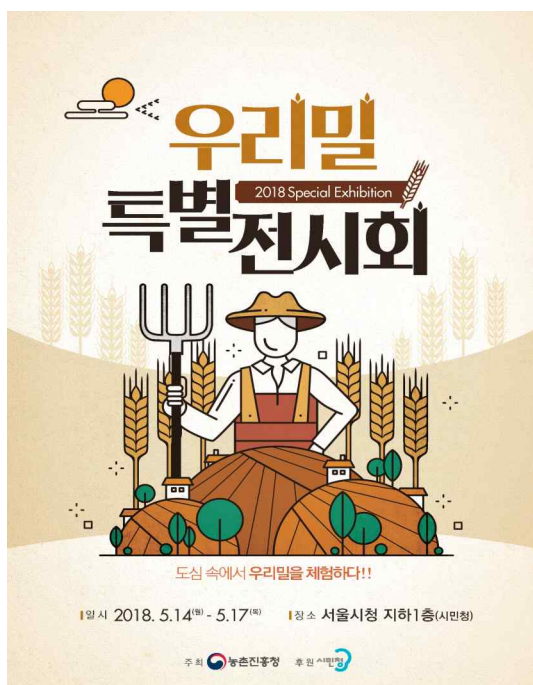
* 출처 : 전라남도

▶ 도심으로 온 밀밭, 우리밀을 만지다

- 농촌진흥청, 14일부터 나흘간 서울시청서 특별전시회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청 지하 1층(서울시민청)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우리밀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연다.
-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추운 겨울에도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우리밀의 강점 홍보는 물론,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소비를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 전시회에서는 우리밀의 역사와 우수성, 생육 과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료와 밀 식물체, 밀로 만든 빵, 쿠키, 라면 등 다양한 가공제품도 볼 수 있다.
- 이 밖에 우리밀로 △화분 만들기 △그리기 △밀짚공예 △반죽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가공 제품을 맛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 토크쇼는 밀 전문가의 진행으로 △우리밀 이용 현황 △몸에 좋은 우리밀의 우수성 △우리밀 안전성과 품질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2018 Special Exhibition

우리밀 특별전시회

도심 속에서 우리밀을 체험하다!!

1월시 2018. 5.14(월) - 5.17(목) 4일간

1장소 서울시청 지하1층(시민청)

전시회 일정표

구분	5.14(월)	5.15(화)	5.16(수)	5.17(목)
10:00~13:30		[체험] 밀가루 오감체험	고소한 우리밀치즈 요리	[체험] 밀가루 오감체험
13:30~14:10	우리밀 전시회 개회식		우리밀 소비 활성화 방안 세미나 (태화홀, B2)	[체험] 우리밀 그리기
14:10~15:30	우리밀 사랑 토크쇼 (물먹이문자, B1)	[체험] 밀알공예, 밀가루 오감체험		
15:30~16:00	[체험] 밀 안공교배, 밀알공예		[체험] 가정용 밀 곡물 만들기, 우리밀 그리기	
16:00~18:00	[체험] 밀가루 오감체험	[체험] 우리밀 그리기	[체험] 밀가루 오감체험	

※ 서울로 우리밀 꽃 재밌게 전시

5.14(월) 개회식, 우리밀 사랑 토크쇼		5.16(수) 우리밀 소비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제1부 : 개회식 (시청·국립식량과학원 공동인 과정)		13:30~15:00	사회 : 김명현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 주최 :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임용철 부장)
13:30~14:10	우리밀 전시회 개회식	13:30~13:55	밀 품질개선 및 최신 동향 (고려대, 서울원 교수)
제2부 : 우리밀 사랑 토크쇼		13:55~14:20	안전한 먹거리 우리밀 산업화 사례 (민주우리밀, 신지호 대표)
14:10~15:30	사회 : 남태희 (서울시인정 운영위원장) 주최 : 권미애 (부산대학교 교수) 주최 : (국립식량과학원) 임용철 부장 주최 :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	14:20~14:45	우리밀 연구현황 및 개발방향 (국립식량과학원, 고종민 과장)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601)330-2593 Fax. 061)335-4199

VOL. 184

